

종합·해설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강운태 남·북·동구서 30%대 넘는 지지율 단일화, 정동채 12.4%P·이용섭 6%P 상승

직함 없이 이름만 제시
광주·전남 1천명씩 조사

강운태 의원의 선두 유지, 정동채 전 장관의 약진. 박광태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후보 단 일화 이후 나타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판세다.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 의원의 지지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정동채 전 장관이 후보 단일화의 수혜를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후보는 지난 2월 광주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 비해 무려 12.4%포인트 상승했다.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단일화를 통해 20·30대와 학생층의 지지율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갑길 전 구청장과의 단일화에 성공한 이용섭 의원은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6.1%포인트 상승했지만, 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정 전 장관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광주시내 전역을 돌며 인지도를 높인 반면 이 의원의 경우 선거법에 발이 묶이면서 지지도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지지도에서는 강 의원이 남구(47.6%)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북구(33.1%)와 동구(31.8%)에서도 30%대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정 후보는 서구(29.2%)에서 3명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지역별 지지도

지역별	강운태(%)	정동채(%)	이용섭(%)	부동층(%)
동 구	31.8	18.7	15.2	34.4
서 구	23.9	29.2	19.7	27.2
남 구	47.6	11.0	11.5	29.9
북 구	33.1	19.4	13.0	34.4
광산구	23.8	20.5	15.8	39.9

보였고, 반면 남구(11.0%)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서구(1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뒷받침 광산(15.8%)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 특히 같은 지역의 지지층이 있는 전갑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강 의원이 50대(45.6%)와 60대(40.9%)에서, 정 후보는 만19세~29세(25.4%)와 30대(28.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각 연령대별로 10%대 중·후반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8.7%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업별 지지도에서는 강 의원이 자영업(41.0%)과 무직·기타(38.5%)에서, 정 후보는 블루칼라(23.7%)와 학생(23.4%)층에서, 이 의원은 화이트 칼라(24.0%)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론조사 어떻게

광주일보와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28일 이틀 동안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각 후보들의 직함과 경력을 모두 제외한 채 후보 이름만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Quota Sampling)해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방식(CATI 시스템)을 사용했다. 응답률은 광주 26.1%, 전남 29.0%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성별·연령별·지역별·학력별·직업별·소득별 등 기본 사항과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등 총 7개 문항으로 조사를 했다.

지지도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샘플은 광주·전남 각각 1천 명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은 광주지역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487명(48.7%)과 513명(51.3%)이었으며, 거주지별로는 ▲동구 83명(8.3%) ▲서구 209명(20.9%) ▲남구 154명(15.4%) ▲북구 332명(33.2%) ▲광산구 222명(22.2%)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 216명(21.6%), 30대 230명(23.0%), 40대 230명(23.0%), 50대 156명(15.6%), 60대 이상 168명(16.8%)이었다.

전남지역은 목포시 120명(12.0%), 여수시 149명(14.9%), 순천시 134명(13.4%), 나주시 54명(5.4%), 광양시 74명(7.4%), 담양군 23명(2.3%) 등이었고, 연령별로는 19~29세 164명(16.4%), 30대 170(17.0%), 40대 200명(20.0%), 50대 168명(16.8%), 60대 이상 298명(29.8%)이었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각각 1천 명)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사고 당시 초기 대응 부실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원인 뭐든 안보태세 허점” “고등어 배도 해군보다 낫겠다”

국회 국방위 ‘천안함 침몰’ 집중 성토

국회 국방위의 29일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 및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작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뤄졌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군의 대응을 자화자찬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응탄폭격을 받았다.

우선 김 장관은 어선에 의해 실종된 천안함 함미가 발견된 것에 대해 “함미 위치를 (사고) 첫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가 흘러 내려갔다”며 “어선과는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관계를 유지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원일 천안함 함장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함장은 집결한 승조원 20명을 지휘해 30명을 구출해내는 영웅적 성과를 거뒀다”며 “함장은 전원을 이동시키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구조함으로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의 초기대응은 잘했다”고 평가

한 것과 관련, “해군과 해경이 잘 협조했고 초동 조치는 비교적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김 장관을 격렬히 성토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함미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민간인 어선의 고기때 탐지 기계로 발견해 해군에 알려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초동 대응이 잘됐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이 즉각 답변하려 하자 “내가 거기에 대해 해명을 뜯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며 “너무 국민과 동떨어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수심이 40m 밖에 안됐는데 아무리 물살이 세더라도 배가 흘러가봐야 얼마나 갔겠느냐”라며 “그렇다면 최초 침몰 지점에서 50m 내외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면 함미를 찾아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국민의 답답한 마

음”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고등어 잡는 배에도 기본적으로 잠착대 있는 이 장치(어군탐지기)만 사용하면 100m 바다 밑바닥까지 물체를 찾을 수 있다는 거다. 이보다 못한 재래식 어군 탐지기도 바다 속 30~40m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며 “그 많은 예산을 쓰는 해군이 함미 하나 못 찾고 어선이 찾았다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사고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안보태세에 큰 허점을 보여 준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완벽해야 대처해야 할 군의 방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고, 내부적 문제라면 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4일간 해군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초반부터 군·민간이 전부 나서서 부족한 판에 왜 단계적 대응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7.4%P상승... 서부권서 높은 지지율 주승용·이석형 소폭 하락... 1위와 격차 커져

박준영 전남지사가 32.6%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19.1%)을 13.5% 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와 이석형 전 함평군수(10.0%)가 뒤따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박 지사는 지난 2월 본보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지지율이 7.4%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군수의 지지도는 각각 0.6%, 2.2% 소폭 하락하면서 1위 박 지사와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지사가 지난 25일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다음날 지사 직무가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는 배수진을 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지사는 강진(55.1%)과 자신의 고향인 영암(52.4%)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목포시(41.3%)·화순군(46.1%)·해남군(45.8%)·완도군(42.4%) 등 전남 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20~30%대의 고른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상대 후보의 뒷받침 여수시(10.8%)와 함평군(10.6%)에서는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시(59.0%)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를 얻었고, 순천시(25.1%)와 광양시(23.4%), 보성군(22.5%) 등 전남 동부권에서 20%대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 안팎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권역별 지지도

권역별	박준영(%)	주승용(%)	이석형(%)	부동층(%)
동 부	26.2	34.4	4.9	34.4
중 부	34.0	5.9	15.7	44.4
서남부	39.6	6.5	13.6	40.3

동 부·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구례·곡성

중 부·나주·담양·장성·화순·영광

서남부·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함평·진도·완도·강진·장흥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 전 군수는 ‘3선’을 했던 함평군(34.2%)과 인근 무안군(26.9%)·영광군(26.3%)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전남 동부권과 일부 서부권에서는 10%대 안팎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박 지사는 60대 이상에서 27.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30% 중·후반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주 의원은 30·40·50대에서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 전 의원은 10대%의 지지율에 그쳤다.

직업군에서는 박 지사가 모든 직업군에서 30~40%대의 고른 지지를 얻었지만, 주 의원은 10~20%대, 이 전 군수는 농·임·어업과 자영업, 블루칼라 층에서 10%대 지지율을 얻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 학원!!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4월1일 **국비환급**

- ▶ 동영상 무료 전과목 (연회원)
- ▶ 오답 노트 제공
- ▶ 기본서 6권 50% 할인
- ▶ 동영상 강의만 (6과목) (가입시부터 ~ 2010. 8. 31 ~ 290,000원)

민·개·공 3인방

- 박홍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0019
반격의 새로운 이후 운동권 광고기 옆 심세인법 2층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 - 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전화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